

중학생의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경험 및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이석희¹ · 김경희² · 김지수³ · 김기숙⁴

서울공향초등학교¹, 중앙대학교 간호대학², 한림성심대학교 간호과³, 국립창원대학교 간호학과⁴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Childhood abuse and Stressful Experience on Suicidal Ide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Lee, Seog Hee¹ · Kim, Kyung Hee² · Kim, Ji Su³ · Kim, Ki Sook⁴

¹Seoul Konghang Elementary School, Seoul

²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³Department of Nursing,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Chuncheon

⁴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results, personal characteristics, child abuse experiences, and stress were obtained from a sample of 657 middle school students from 3 conveniently selected schools in S city. **Results:** Suicidal ideation of participa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ild abuse experience, stress, psychosomatic symptoms, antisocial personality and depressive tendencies, whereas sociability and self-esteem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cluded an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stress related to the family environment, mental abuse, gender (female), depressive trend, running away from home, sociability, and stress related to academic performance. These factors explained 39.9%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earlier screening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depression and str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will be helpful in reducing suicidal ideation. Further studies are needed in which other strategies that could prevent suicidal ide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are examined.

Key Words: Suicidal ideation, Child abuse, Psychological Stress, Student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자수는 2009년 기준으로 2008년의 13.5명(10만 명당)보다 증가한 15.3명이었으며, 청소년의 8.8%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1). 또한, 서울특별시 초·중·고 학생 1,750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조사에서 학교안전 및 건강 관련 인식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자살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중학생의 42.8%, 고등학생 35.5%에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Kim, & Kim, 2011).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살생각과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주요어: 자살생각, 아동학대, 스트레스, 학생

Corresponding author: Kim, Ki Sook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 Changwondaehak-ro, Uichang-gu, Changwon 641-240, Korea.

Tel: +82-55-213-3572, Fax: +82-55-213-3579, E-mail: kskim2011@changwon.ac.kr

투고일: 2012년 4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4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9일

수 있다.

이러한 자살 현상은 가족과 사회에 커다란 손실이 되는데, 자살과 자살시도는 생명의 상실, 신체적 손상과 의료적 비용, 슬픔과 고통, 가족과 지역사회 해체의 견지에서 엄청난 비용 손실을 초래한다(Kim, 2006). 특히, 청소년 자살은 그 충격과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살자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 분노와 같은 심리적 외상을 겪게 하며 자살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인 낙인까지 남게 만든다(Moon & Kim, 2011). 게다가 방어기제가 미성숙한 청소년기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생각과 문제행동을 보이며 심리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Chung, Ahn, & Kim, 2003), 자칫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심각한 청소년 문제 중 하나인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자살 행동의 예측 지표가 될 수 있는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2000년 이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다룬 국내 연구는 소수였으나,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근래에 들어 청소년 자살 생각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Park, 2008). 주로 생활 스트레스, 우울, 자존감, 절망감,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Cha & Kang, 2010; Lim, 2010; Park, 2007)과 자살 생각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살시도를 살펴보면서 관련 변인을 심리, 가족환경, 학교환경, 사회문화 군으로 나누어 영향 변인을 규명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Cheung & Chan, 2007; Parrish & Tunkle, 2005). 최근에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메타분석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자살생각 유발변인군으로 학교환경, 가족환경, 사회문화, 심리 변인군 순으로, 각각의 하위변인으로 심리특성, 스트레스, 학대경험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oon & Kim, 2011). 특히, 폭력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이 중에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적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Park, 2007; Park, 2010). 또한, 개인의 성격특성은 우울이나 절망, 스트레스 등의 요인보다 자살의 강력한 예측인자이며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요인을 유발할 수 있는 발생인자가 된다(Yeo & Baek, 2010).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학대경험 및 스트레스로 청소년의 자살의도를 설명하려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들은 90% 이상이 고등학생과 초·중·고교생 포괄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Moon & Kim, 2011). 그러나 청소년의 자살 및 정신건강 문제 발생은 저연령화 추세이며, 자살생각의 최초 시기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Ha, 2000),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a & Kang, 2010; Lim, 2010; Park, 2008). 또한, 미국 청소년 건강위험 행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중학생에 해당하는 9학년에서 11학년의 자살시도율이 높았으며(Eaton et al., 2006), 폭력 등의 학대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자살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등(Park, 2010), 중학교 시기는 청소년 시기 중 가장 불안정하고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자아정체감 형성과 같은 발달 과업에 직면하여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예방의 중재 시기는 중학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Yoo, Son, & Nam, 2008).

이에 본 연구는 높은 자살 시도율을 보이고 예방중재에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경험 및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정도를 검증하고 인과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 및 자살의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선별 도구를 만들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대상자의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경험,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경험 및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경험,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을 파악하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중학생으로 서울 소재 3개 중학교를 편의의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중학교의 학교장에게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각 학교 사전 심의 위원회(학년부장교사, 담임교사, 보건교사)에서 심의결과 통과한 3개 학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참여를 허락한 3개 중학교의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기재 요령을 설명한 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과정을 설명하였고, 익명성을 유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았다. 표본 크기 검증을 위해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다중 회귀분석의 효과크기(f^2) .0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측정 변수의 하위변수를 포함한 변수 약 15개를 기준으로 570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약 15%와 학급당 전체 인원을 고려하여 675부를 최초 배부하였으며 이중 668부(98.9%)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57부(97.3%)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성격특성

성격특성은 Kim과 Kim (1999)이 개발한 개인 성격 특성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성격특성은 사회성향,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반사회적 성격양상, 우울성향, 자아존중감의 5가지 하부요인으로 구성된 45개 문항이며 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요인의 성격성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9$ 에서 .90 범위였으며, 내용타당도와 변별타당도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하부 요인의 Cronbach's α 는 사회성향 .93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88 반사회적성향 .87 우울성향 .87 자아존중감 .89로 나타났다.

2) 아동기 학대경험

아동기 학대경험은 Jang과 Lee (1999)가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아동의 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Song (2009)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에서는 항목의 점수 배점이 학대경험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전혀 없었다'에 1점, '일 년에 1~2회'에 2점, '한달에 1~2회'에 3점, '일주일당 1~2회'에 4점, '거의 매일'에 5점을 부여하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개 하위요인의 문항은 신체적 학대 8문항, 정서적 학대 7문항, 방임 8문항으로 총 23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개발당시 Song (2009)의 연구에서 각 하부 요인의 신뢰도는 신체적 학대 .79 정서적 학대 .86 방임 .91로 전체 Cronbach's $\alpha = .85$ 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신체적 학대 .77, 정서적 학대 .83, 방임 .71로 전체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3)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아동의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Han과 Yoo (1995)가 개발한 도구를 Lim (2010)이 연구에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여러 요인들로부터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측정도구의 구성은 가정환경영역 7문항, 친구영역 7문항, 학업영역 6문항, 교사/학교영역 7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 (2010)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영역별 신뢰도는 .78에서 .89 범위였고,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7$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가정환경 .85, 친구 .90, 학업 .84 교사/학교 .76로 전체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4) 자살생각

자살생각에 대한 측정도구는 Reynolds (1988)가 개발한 자살생각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로 현재의 자살생각의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하지 않지만 자살생각을 보인다는 관찰로부터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Park (2007)이 수정·보완하여 연구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살생각에 대한 문항은 총 3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살생각척도(SIQ)는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89로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Reynolds & Mazza, 1999)이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져 왔다. Park (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8$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t-test와 ANOVA로 차이를 검정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검정법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자살생각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관관계 검정을 하였다. 대상자의 관련 변수에 따른 자살생각은 단계적 변수방법에 의한 다중 회귀분석으로 인과 관계를 검정하였다.

학년이 51.1%로 가장 많았고 2학년 25.0%, 3학년 23.9%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57.5%가 종교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가 89.0%로 가장 많았으나 어머니만 동거하는 한부모 가족은 6.4%, 아버지만 동거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3.8%, 양측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도 0.8%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1.1%로 가장 많았고 풍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9.9%,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9.0%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47.3%,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46.7%,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 5.9%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를 하는 대상자는 2.6%로 나타났으며 가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9.4%로 나타났다(Table 1).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62.1%, 여자 37.9%로 나타났으며 1

2.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 경험,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 정도

대상자의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 경험,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우선 성격특성은 최소 1점에서 최대 4.3점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 3.1점으로 하부요인에 따른

Table 1. Differences in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657)

| Variables | Categories | n (%) | Suicidal ideation | | | |
|-----------------------------|-----------------------|------------|-------------------|--------|--------|-----------|
| | | | M±SD | t or F | p | Scheffé |
| Gender | Male | 408 (62.1) | 1.46±0.63 | 3.14 | .002 | |
| | Female | 249 (37.9) | 1.62±0.63 | | | |
| Grade | 7th grade | 336 (51.1) | 1.54±0.34 | 1.12 | .325 | |
| | 8th grade | 164 (25.0) | 1.55±0.65 | | | |
| | 9th grade | 157 (23.9) | 1.46±0.60 | | | |
| Religion | None | 279 (42.5) | 1.49±0.61 | 0.96 | .334 | |
| | Have | 378 (57.5) | 1.54±0.65 | | | |
| Parental living arrangement | Both parents | 585 (89.0) | 1.50±0.62 | 2.49 | .059 | |
| | Only father | 25 (3.8) | 1.78±0.83 | | | |
| | Only mother | 42 (6.4) | 1.68±0.65 | | | |
| | Neither parents | 5 (0.8) | 1.42±0.88 | | | |
| Economic status | High | 131 (19.9) | 1.44±0.61 | 1.35 | .258 | |
| | Moderate | 467 (71.1) | 1.54±0.64 | | | |
| | Low | 59 (9.0) | 1.57±0.62 | | | |
| Subjective health status | Good ^a | 311 (47.3) | 1.34±0.52 | 28.05 | < .001 | a < b < c |
| | Moderate ^b | 307 (46.7) | 1.66±0.65 | | | |
| | Bad ^c | 39 (5.9) | 1.90±0.87 | | | |
| Smoking | No | 640 (97.4) | 1.51±0.62 | 3.81 | < .001 | |
| | Yes | 17 (2.6) | 2.12±0.79 | | | |
| Drinking | No | 640 (97.4) | 1.50±0.62 | 4.80 | < .001 | |
| | Yes | 17 (2.6) | 2.24±0.82 | | | |
| Run away | No | 595 (90.6) | 1.48±0.59 | 5.18 | < .001 | |
| | Yes | 62 (9.4) | 1.92±0.84 | | | |

평균은 사회성향 4.1점,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2.0점, 반사회적 성향 2.1점, 우울성향 3.4점, 자아존중감 4.0점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최소 1점에서 최대 3.9점의 범위로 평균 1.2점이며 하부요인에 따른 평균은 신체적 학대 1.2점, 정서적 학대 1.2점, 방임 1.1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최소 1점에서 최대 3.2점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 1.7점으로 하부요인에 따른 평균은 가정환경 영역 1.5점, 친구 영역 1.4점, 학업 영역 2.0점, 교사/학교 영역 1.5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은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 1.5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자살생각 정도가 1.6점으로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14, p=.002$).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Table 2. Levels of Personality Factors, Abuse experienc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 Variables | M±SD | Min | Max |
|---------------------------------|-----------|------|------|
| Personality factor | 3.17±0.38 | 1.95 | 4.32 |
| Sociability | 4.12±0.94 | 1.00 | 6.00 |
| Psychosomatic symptoms | 2.09±0.97 | 1.00 | 5.90 |
|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 2.16±0.92 | 1.00 | 5.40 |
| Depressive trend | 3.45±1.02 | 1.00 | 6.00 |
| Self-esteem | 4.05±1.18 | 1.00 | 6.00 |
| Abuse | 1.22±0.32 | 1.00 | 3.96 |
| Physical abuse | 1.25±0.37 | 1.00 | 3.88 |
| Mental abuse | 1.26±0.48 | 1.00 | 4.00 |
| Neglect | 1.14±0.31 | 1.00 | 4.00 |
| Stress | 1.70±0.45 | 1.00 | 3.24 |
| Family environment | 1.55±0.56 | 1.00 | 4.00 |
| Friend | 1.43±0.55 | 1.00 | 4.00 |
| Study | 2.04±0.73 | 1.00 | 4.00 |
| Teachers/schools | 1.58±0.53 | 1.00 | 3.43 |
| Suicidal ideation | 1.52±0.63 | 1.00 | 4.00 |

Table 3. Relationship among Suicidal Ideation and related Variables

| Variables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
| | r (p) | r (p) | r (p) | r (p) | r (p) | r (p) | r (p) | r (p) | r (p) | r (p) | r (p) | r (p) |
| Suicidal ideation | -.14 (<.001) | .44 (<.001) | .53 (<.001) | .23 (<.001) | -.24 (<.001) | .27 (<.001) | .37 (<.001) | .29 (<.001) | .42 (<.001) | .33 (<.001) | .32 (<.001) | .32 (<.001) |

A=sociability; B=psychosomatic symptoms; C=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D=depressive trend; E=ego respect; F=physical abuse; G=mental abuse; H=neglect; I=family environment stress; J=friend stress; K=study stress; L=teachers/schools stress.

서는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았으며($F=28.05, p<.001$), 흡연($t=3.81, p<.001$)과 음주($t=4.80, p<.001$)를 하거나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t=5.18, p<.001$) 자살생각의 정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학년, 종교, 부모 동거 상태와 경제 상태에 따라서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 경험,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 경험,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자살생각은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 경험,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성격특성 중 사회성향($r=-.14, p<.001$)과 자아존중감($r=-.24, p<.001$)이 낮을수록,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r=.44, p<.001$)과 반사회적 성향($r=.53, p<.001$) 및 우울성향($r=.23, p<.001$)이 높을수록, 신체적 학대($r=.27, p<.001$)와 정서적 학대($r=.37, p<.001$) 및 방임($r=.29, p<.001$)의 경험이 많을수록, 가정환경 스트레스($r=.42, p<.001$), 친구 영역 스트레스($r=.33, p<.001$)와 학업 스트레스($r=.32, p<.001$) 및 교사/학교 스트레스($r=.32, p<.001$)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5.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가변수로 보정하고 관련요인을 독립변수로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우선 공차한계(tolerance)는 0.56~0.96으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03~1.81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분석을 한 결과 표준화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의 가정이 만족되어 회귀모형은 타당하였다.

자살생각 모형 검증 결과 $F=55.38$ ($p<.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39.9%였다. 중학생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수로는 성격 특성의 하부요인 중 사회 성향($\beta=.10, t=2.49, p=.013$), 반 사회적 성향($\beta=.38, t=10.99, p<.001$) 및 우울 성향($\beta=.17, t=4.38, p<.001$)이 아동기 학대경험의 하부요인 중 정서적 학대($\beta=.13, t=3.93, p<.001$)가 스트레스의 하부요인 중에는 가정환경 스트레스($\beta=.15, t=4.23, p<.001$) 및 학업 스트레스($\beta=.07, t=2.11, p=.003$)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 중 여학생의 경우($\beta=.12, t=4.02, p<.001$),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beta=.097, t=3.05, p=.002$)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 경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자살생각과의 인과적 요인 및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중학생 자살의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선별 도구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격특성은 사회성향, 자아존중감, 우울성향, 반사회적 성향,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된 변수 중 성격 특성의 하위변인인 우울성향의 경우,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규명한 여러 선행연구결과로 지지되고 있으며(Kwak, Yim, & Jung, 2009; Park, 2007; Yoo et al., 2008), 청소년에게 우울은 자살 생각의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Kim & Lee, 2009). 또한, 예측 변인인 사회성, 우울성향, 반사회적 성향,

자아존중감 등의 성격 특성은 중학생의 자살 생각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애 단계 중 가장 역동적인 중학생 시기는 성격의 재구성기로서 성격특성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대상자 개인 스스로의 성격특성 파악과 함께 긍정적 방향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중학생이 인식한 아동기 학대경험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Song (2009)의 연구에서는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순으로 순서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살 생각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Park (2010)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신체적 학대에 비해 덜 주목받고 있는 부모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중재가 자살 예방 중재에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자살생각의 다양한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최근 연구에서 아동기에 겪었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결과로 이어졌는데(Kim, Chun, & Lee, 2009; Kim & Lee, 2009; Moon & Kim, 2011; Park, 2007),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oon과 Kim 등(2011)은 가족환경 유발변인군의 하위 변인인 학대경험과 가정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큰 효과변인이었다고 보고하였고, Kim 등(2009)과 Kim과 Lee (2009)는 아동기에 학대경험을 가진 청소년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된

Table 4. Influence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 Variables | B | SE | β | t | p | Tolerance | VIF |
|---------------------------------|-----|-----|---------|-------|-------|-----------|------|
|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 .26 | .02 | .38 | 10.99 | <.001 | .75 | 1.31 |
| Family environment stress | .17 | .04 | .15 | 4.23 | <.001 | .66 | 1.50 |
| Mental abuse | .18 | .04 | .13 | 3.93 | <.001 | .76 | 1.31 |
| Gender (female) | .16 | .04 | .12 | 4.02 | <.001 | .96 | 1.03 |
| Depressive trend | .11 | .02 | .17 | 4.38 | <.001 | .56 | 1.77 |
| Run away (yes) | .21 | .06 | .09 | 3.05 | .002 | .91 | 1.09 |
| Sociability | .06 | .02 | .10 | 2.49 | .013 | .55 | 1.81 |
| Study stress | .06 | .02 | .07 | 2.11 | .003 | .79 | 1.26 |

Adjustive $R^2=.39, F=55.381, p<.001$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 중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았고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수로 도출된 것은 Kim과 Lee (2009)의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방임보다 자살생각에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지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관한 이슈는 주로 신체적 학대와 성적학대에 관한 것이었으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아동학대는 청소년자살의 직접적 위험요인이 되고, 우울을 통한 간접적 위험요인으로도 보고되고 있으며 (Moon & Kim, 2011),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로 야기 될 수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지만 포괄적으로는 성적학대까지 포함하는 실천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2.0점으로 가정, 친구, 교사/학교, 학업 스트레스 중 가장 높았는데 이는 Lim (2010)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스트레스 중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아 본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는 중학생의 자살생각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 Park과 Moon (2010)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바 있으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현실도피의 한 방법으로 자살 충동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한 Moon (2006)의 연구로 지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중학생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지만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Kim et al., 2009;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0; Park & Moon, 2010). 또한, 담배와 술의 경우 흡연을 하거나 음주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자살생각이 높았는데, 이는 Kwak 등(2009), Park과 Moon (2010)의 연구로 지지되고 있으며 특히, Park (2008)의 연구에서는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보다 흡연학생과, 음주학생에서 각각 3.1배, 2.3배 자살시도 경험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 자살의 특성은 정신과적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성인과 달리 정말 죽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Song, 2009) 중학생 자살 생각 감소를 위해

서는 성별에 따른 접근 및 음주와 흡연 등의 탈선행위의 원인이 되는 요인 탐색이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지하는 경우 자살생각이 높았는데, 이는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한 학생의 자살생각 비율과 실제 자살 시도가 높았고 보고한 Park과 Moon (2010) 및 Park (2008)의 연구로 지지되고 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 개인특성 변인이 자살생각의 보호변인으로써 효과크기가 크다고 보고한 Kim과 Lee (2009)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중학생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이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중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부 도구(아동기 학대경험)는 선행연구에서 타당도 검증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도구 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자살생각의 위험성을 낮추고 중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울 및 스트레스를 예방 관리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특히,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경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건강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성과 자아존중감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한 중재 확대가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아동기 학대 경험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경험, 스트레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생각과의 인과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자살생각은 평균 1.5점이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흡연, 음주,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았다. 학년, 종교, 부모 동거 상태와 경제 상태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살생각은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 경험,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격특성 중 사회성향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성향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 회귀 분석한 결과, 자살생각 예측 변수는 반사회적 성향, 가족 환경 스트레스, 정신적 학대, 여학생의 경우, 우울 성향,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 성향, 학업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은 중학생 청소년 자살생각의 39.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중학생의 자살생각 예측 변인으로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경험, 스트레스가 예측요인으로 밝혀

졌고, 특히, 중학생의 성격 특성 변수와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심각한 사회 문제인 중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인성을 키워 주는 즉, 사회 성향을 길러주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및 지역정신보건 센터와 연계된 청소년 자살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임의표집에 따라 선정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선별 가능한 도구 개발을 위한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중학생 및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자살시도의 위험을 줄이고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검진 및 조기 중재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 위험 조기 진단 및 선별 도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학생의 자살생각 감소를 위해서는 자살생각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경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정규 보건교과에서 제공하고, 아동기 학대 경험이나 성격 특성의 조기사정을 통해 자살생각 위험이 높은 중학생을 선별한 상담 및 보건교육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Cha, M. Y., & Kang, S. H. (2010). The effect of life event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n high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 (2), 93-122.

Cheung, S. K., & Chan, A. C. M. (2007). Multiple pathways from stress to suicidality and the protective effect of social support in Hong Kong adolescen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7*(2), 187-196.

Chung, H. K., Ahn, O. H., & Kim, K. H. (2003). Predicting factors on youth suicide impuls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2), 107-126.

Eaton, D. K., Kann, L., Kinchen, S., Ross, J., Hawkins, J., Harris, W. A., et al. (2006).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United States, 2005. *Journal of School Health, 76*(7), 353- 372.

Ha, Y. E. (2000).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an, M. H., & Yoo, A. J. (1995). Development of daily Hassels scale for childr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4), 49-64.

Jang, H. J., & Lee, J. Y. (1999). The development of a child abuse

assessment scal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3*(1), 77-96.

Kim, B. Y., & Lee, C. S. (2009).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5), 651-661.

Kim, H. S. (2006). The current trend of suicide and its prevention in life stag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4*, 271-292.

Kim, H. S., & Kim, H. S. (1999). Development of instrument for measuring personality factor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8*(1), 190-201.

Kim, J. Y., Chun, Y. K., & Lee, J. S. (2009).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ive relationship in the contribution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domestic child abuse to suicidal ideation. *Yonsei Social Welfare Review, 21*, 119-144.

Kim, M. K., Kim, Y. N., & Kim, S. H. (2011). *Survey of child and youth safety and health, Seoul*. Retrieved March 21, 2011, from <http://www.seoulwomen.or.kr/nhp/dataroom/research>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09*. Retrieved June 11, 2011 from <http://yhs.cdc.go.kr/>

Kwak, S. J., Yim, Y. J., & Jung, H. S. (2009). The analysis on factor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2*(2), 103-111.

Lim, M. R. (2010).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stress, despair,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Moon, D. K., & Kim, Y. H. (2011). A meta-regression analysis on related triggering variables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3), 945-964.

Moon, K. S. (2006).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suicidal impulse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 (5), 143-157.

Park, B. K.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6*(3), 505-522.

Park, E. O. (2008).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3), 465-473.

Park, J. S., & Moon, J. W. (2010).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Health and Social Science, 27*, 105-131.

Park, J. Y. (2010). The difference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 and high school student where child abuse have effects on adolescent suicid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8*, 61-92.

Parrish, M., & Tunkle, J. (2005). Clinical challenges following an adolescent's death by suicide: Bereavement issues faced by

- family, friends, schools, and clinicians.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3(1), 81-102.
- Reynolds,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eynolds, W. M., & Mazza, J. (1999). Assessment of suicidal ideation in inner-city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JR. *School Psychology Review*, 28(1), 17-30.
- Song, G. H. (2009). *Influence of the experience of the childhood abuse on the self-esteem and suicidal thought in the adolescence peri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 Statistics Korea. (2011). *Youth of death rate in 2009*. Retrieved June 15, 2011, from <http://kostat.go.kr/wsearch/search.jsp>
- Yeo, H. H., & Baek, Y. M. (2010). The effect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on suicide-related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4), 1047-1056.
- Yoo, J. S., Son, J. W., & Nam, M. S. (2008). Factors influencing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3), 419-429.